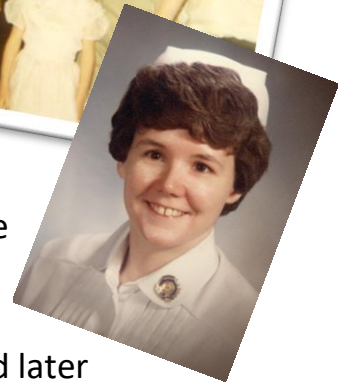




Hello, I am Sister Kathleen Gallagher. I am known as Sister Katie to most people. I am from the Sheraden area of Pittsburgh and am the fourth of eight children. We are a close knit family who celebrate together frequently. We love music and singing together gives us a special bond. Our house was directly across the street from my Church and school. The Sisters of Charity staffed Holy Innocents School where I attended both grade and high school. My family was always very close to the Church and to the Sisters. My faith was nourished and deepened by these loving and caring relationships.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64 and spent many hours of my novitiate ministering to our sisters in the infirmary at Assumption Hall. My first task was to pass water pitchers in the evening. I enjoyed this and I got to know the sisters in a special way. In my canonical year I served as a nurse aide and grew to love nursing. Once I pronounced my first vows I attended Practical Nursing School, graduating in 1969. I had many different experiences, working as a staff nurse at St. Francis Hospital, Roselia Foundling, Assumption Hall, Pittsburgh Hospital and later Forbes Hospital. I have always tried to share my faith experience with my care for people so I attended a course in pastoral care at Mercy Hospital in Pittsburgh. Finally, I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West Penn Hospital School of Nursing and received my Registered Nurse License in 1984.

I experienced the importance of kind and competent nursing care myself when in 1995 I spent many months with a serious illness. During this time, I missed nursing and realized that it wa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as a Sister of Charity. I believe strongly, "If one gives a glas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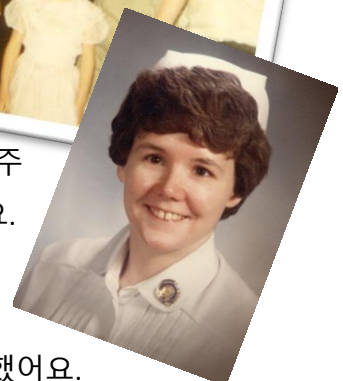


cold water in My Name, you give it unto Me." As I recovered I returned to nursing. Knowing that my best gift in nursing is to adult and senior adults, I served in nursing homes and finally I was asked to be the Director of the Elizabeth Seton Adult Day Care at Caritas Christi in Greensburg. While I am called upon to evaluate and administer the program, I find my greatest satisfaction in helping my clients to maintain a good quality of life.

Living in community has been a great gift for me. I love community gatherings, spiritual reading, meditation, and the opportunity for retreat and sharing. In addition, I love to cook and share a meal with my sisters; celebrating everything Irish; and football, especially Notre Dame and the Steelers. Music is my greatest love. I enjoy being a cantor at Mass and singing with my family and friends. I hope that God blesses the work I do and gives me the strength to continue to serve Him with joy, love, and music.



안녕하세요. 저는 케트린 갤러거 수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케이티 수녀라고 하지요. 저는 피츠버그 세라든 출신으로 여덟 형제 중에 넷째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자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단란한 가족이었어요. 모두 음악을 좋아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사랑을 돈독히 나누었지요. 우리 집은 성당과 학교의 바로 길 건너편에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홀리이노센트(Holy Innocent)초등학교 와 고등학교에는 우리 수녀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성당과 우리 수녀님들과 항상 가까이에서 지냈지요. 이러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덕분에 저의 신앙은 자라나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1964 년 9 월 8 일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련소에 살면서 승천홀(Assumption Hall )에서 휴양하시는 수녀님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저의 첫 번째 사도직은 수녀님들께 저녁에 물병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었지요. 저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수녀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일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법정 수련기에는 간호 보조로 일하면서 간호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첫서원을 하고 간호학원(Practical Nursing School )에 들어가 1969 년에 과정을 마치고 난 후 성 프란치스코 병원, 로셀리아 고아원, 승천홀, 피츠버그 병원과 포브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저의 신앙체험도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피츠버그의 자비의 병원(Mercy Hospital )에서 임상사목 교육과정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웨스트 펜 병원의 간호학교(West Penn Hospital School of Nursing)에 들어가 1984 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1995 년 몇 달 동안 크게 아프면서 저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아픈 동안 저는 간호일을 쉬어야 했지요. 그러면서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이 일이 사랑의 수녀로서의 저의 삶에 중요한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른 이에게 시원한 물 한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회복하면서 저는 다시 간호 사도직으로 돌아왔어요. 성인과 노인을 돌보는 간호 사도직이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는 요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카리타스 크리스티에 있는 엘리사벳 씨튼 성인 데이 케어 센터의 책임을 받게 되었지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행정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제가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일은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편안히 잘 지내시도록 돕는 일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삶은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저는 공동체 모임, 영적 독서, 묵상, 피정과 나눔 등을 매우 좋아해요. 음식을 만들어 수녀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아이리쉬 기념일 축하하고 축구 특히 노트 담과 스틸러스 팀을 좋아하지요.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에요. 미사 때 선창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하느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주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기쁨과 사랑, 음악으로 계속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